

찬 양	본 문	제 목	매일 성경	찬 송
1(수)	시 136:1-26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성도의 영원한 감사 노래	수3, 시126-128, 사63, 마11	새79 통40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은 신들과 주들 중 뛰어나시고, 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강한 손과 퍼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2(목)	시 137:1-9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백성의 애통한 간구	수4, 시129-131, 사64, 마12	새/통91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읊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불러 보라 청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애도 자손과 바벨론의 악행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3(금)	시 138:1-8	찬양과 간구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수5:1-6:5, 시132-134, 사65, 마13	새312 통341
다윗은 성전을 향해 예배하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은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주시어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낮은 자를 살피시고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그분은 환난 중에서도 그를 살리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4(토)	시 139:1-12	주님 눈을 항상 의식하는 삶	수6:6-27, 시135-136, 사66, 마14	새299 통418
다윗은 주님이 자신을 살펴보시고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의 모든 길, 그의 생각과 행위와 말을 아십니다. 주님의 영을 떠나 하늘이나 스올이나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는 흑암과 빛이 같이 있으니 주님으로부터 숨지 못합니다.				
5(일)	시 139:13-24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결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수7, 시137-138, 렘1, 마15	새563 통411
다윗은 자신을 지으심이 기묘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를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 지으셨으며 그의 형체를 보시고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해 그들을 원수 삼습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을 살피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6(월)	시 140:1-13	악담과 악행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	수8, 시139, 렘2, 마16	새390 통444
다윗은 악인과 포악한 자와 교만한 자에게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큰 능력이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공평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서 살 것입니다.				
7(화)	시 141:1-10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수9, 시140-141, 렘3, 마17	새/통 86
다윗은 자신이 부를 때 주님이 오시고 자신의 기도가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의인의 책망을 머리의 기름처럼 여겨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피하니 자신을 버려두지 마시고, 울무와 함정에서 건지시며, 악인의 그물을 면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8(수)	시 142:1-7	주님은 원통한 자의 피난처요 분깃이십니다	수10, 시142-143, 렘4, 마18	새70 통79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호소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이 그를 잡으려 울무를 숨겼습니다. 그는 피난처도 돌보는 이도 없는 자신에게 주님이 피난처와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셔서 주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날 짜	본 문	제 목	매일 성경	찬 송
9(목)	시 143:1-12	종의 간구에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수11, 시144, 렘5, 마19	새391 통446
다윗은 원수가 자기 영혼을 핍박하니 심령이 속에서 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펴며 그의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이 피곤한 그의 영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그를 살리시고 그의 원수들을 끊으실 것입니다.				
10(금)	시 144:1-15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안전과 부요함의 복	수12-13, 시145, 렘6, 마20	새393 통447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사랑, 요새, 산성, 방패 등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번개와 화살로 거짓을 말하는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 청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백성은 자손이 장성하고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가축이 번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11(토)	시 145:1-13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수14-15, 시146-147, 렘7, 마21	새/통 29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는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기이한 일들을 읊조립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궁핍을 배부시기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분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그분의 통치가 대대에 이릅니다.				
12(일)	시 145:14-21	진실히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주님	수16-17, 시148, 렘8, 마22	새26 통14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그분을 앙망하는 이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분의 모든 행위는 의롭고, 모든 일은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				
13(월)	시 146:1-10	주님만 진실하 의지하면 주님이 진실히 들보십니다	수18-19,시149-150, 렘9, 마23	새484 통533
귀인이나 인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소멸하므로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움 삼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갠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14(화)	시 147:1-11	상한 마음의 치유자, 겸손한 자의 구원자	수20-21, 행1, 렘10, 마24	새20 통41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십니다. 별들의 수호를 세시고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드르뜨립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며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경외하는 자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15(수)	시 147:12-20	만물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수22, 행2, 렘11, 마25	새200 통235
하나님이 시온의 문지방을 견고히 하시고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니, 백성이 복을 얻고 일로 배부릅니다. 그분은 눈, 서리, 우박을 내리셔서 감당 못 할 추위를 주셨다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례와 규례를 보이시나, 어느 민족도 그분의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16(목)	시 148:1-14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23, 행3, 렘12, 마26	
하나님 명령으로 지음받은 모든 천사와 해, 달, 별들과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산적 초목과 모든 짐승, 고관대적과 남녀노소는 홀로 이름 높이고 영광이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 곧 그분을 가까이하는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날 짜	본 문	제 목	매일 성경	찬 송
17(금)	시 149:1-9	의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행한 기쁨의 찬양	수24, 행4, 렘13, 마27	새/통 21
시편기자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새 노래로,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합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날가진 칼로 못 나라에 복수하고 민족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시행할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18(토)	시 150:1-6	모든 호흡과 악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삿1, 행5, 렘14, 마28	새19 통44
시편기자는 성소와 관능의 공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춤과 현악과 통소와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권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19(일)	롬 1:1-7	예수님 안에서 얻은 성도의 놀라운 지위	삿2, 행6, 렘15, 막1	새289 통208
복음은 하나님이 그분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위해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20(월)	롬 1:8-17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	삿3, 행7, 렘16, 막2	새216 통356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차됨을 감사하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21(화)	롬 1:18-25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내버려 두심	삿4, 행8, 렘17, 막3	새322 통357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드러나 있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우상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22(수)	롬 1:26-32	하나님 없는 마음, 넘치는 죄의 목록	삿5, 행9, 렘18, 막4	새282 통339
불의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순리대로 쓸 것을 역리로 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을 따라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해 두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옹호합니다.				
23(목)	롬 2:1-11	공평한 척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삿6, 행10, 렘19, 막5	새274 통332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도 같은 악행을 하는 자는 심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같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 날에 임할 진노가 쌓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분노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24(금)	롬 2:12-16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삿7, 행11, 렘20, 막6	새286 통218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율법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율법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그들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7월

QT

[ 시편136-150편/로마서1-4장 ]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삶이 변화됩니다.



날 짜	본 문	제 목	매일 성경	찬 송
25(토)	롬 2:17-29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거듭난 속사람입니다	삿8, 행12, 렘21, 막7	새449 통377
유대인이 율법을 자랑하며 선생이라 자처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를 여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26(일)	롬 3:1-8	하나님의 참되심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삿9, 행13, 렘22, 막8	새290 통412
유대인이 지닌 특권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사람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거나, 사람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27(월)	롬 3:9-20	우리는 머리에서 발까지 철저히 죄인입니다	삿10:1-11:11, 행14, 렘23, 막9	새292 통415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며,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28(화)	롬 3:21-31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	삿11:12-40, 행15, 렘24, 막10	새287 통205
하나님이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법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29(수)	롬 4:1-8	믿는 자에게 주신 의, 전적 은혜의 선물	삿12, 행16, 렘25, 막11	새267 통201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 일하는 자는 삶을 은혜 아닌 보수로 여기지만, 일하지 않은 불 경건한 자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은 의로 여겨집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30(목)	롬 4:9-17	믿음으로 성취되는 은혜의 약속	삿13, 행17, 렘26, 막12	새545 통344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무할례 시입니다. 할례의 표는 무할례 시의 믿음을 의로 인 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와 할례자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31(금)	롬 4:18-25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삿14, 행18, 렘27, 막13	새546 통399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죽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에서 ..

복음적인 “말씀묵상(QT)”요령

말씀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매일 성령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개인예배(personal worship)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이 개인예배에는 반드시 세가지 요소(3R)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Repent(회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모든 죄의 본질은 내 자아를 드러내고/ 확장하려는 “죄의 본성”에 있다. 따라서 행동적인 죄와 함께 내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한 죄를 회개함.

Rebuke(꾸짖음)/Rescind(무효화) 나를 유혹하는 마귀/세상을 믿음으로 꾸짖고, 내 마음에 미친 악한 영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한 구원을 근거로 무효화를 선포함.

Repletion(충만함)/Rejoice(기쁨) 그 결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성령충만과 기쁨이 찾아옴.

많은 분들이 성경본문을 읽고“내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바른 접근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므로 이 거대한 흐름(방향성) 속에서 각 구절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나? 그리스도가 내게 뭘 말씀하시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묵상은 성경공부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못한 내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면 내 안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옛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묵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3년-5년이상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점차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묵상은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묵장에서 목자/목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시작하십시오! 혹시 중간에 못하게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